

영암여고, 전남 첫 '공영형 사립학교' 됐다

전남도교육청,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위해 시범학교 지정 학교운영비 추가 등 재정지원 대폭 확대 계획

학교법인 동아학원 산하 영암여자고등학교가 전남지역 최초로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여고를 첫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는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13개 과제 중 핵심사업이다. 재정지원 약화로 열세한 사학이 증가하면서 공·사립의 균형발전 등 건전사학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신규 교사를 도교육청에 위

탁해 선발하고 사무직원 공개채용, 교육청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인사로 선임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영암여고가 첫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됐고, 도교육청은 영암여고에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앞으로 4년간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감면해주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면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추천이사 2명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는 다음 달 이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현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용기 있는 결단을 갖고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



영암여자고등학교 전경.

에 참여해준 학교법인 동아학원 관계자와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학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 외에도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영올레 운영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건전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및 예산 편성의 공정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영암-전통민 기자 jbh@kwangju.co.kr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 학생들 잇따라 수상

해양수산부 주최 '모의 IMO 총회' 경진대회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2019 모의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본선에서拔군을 성적을 거뒀다.

18일 조선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이대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최·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주관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모의 IMO 총회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의총회는 실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는 국제기구의 모의총회답게 모든 발표와 토론이 영어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31개 팀이 참가했으며, 11개 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김진경·박준수(선박해양공학과)·정안성(철학과)군으로 구성된 Neo팀(지도교수 안규백)과 성대희·정

태수(선박해양공학과)·선민정(영어교육학과)으로 구성된 Culture Shock팀(지도교수 권영섭)이 참가, 두 팀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조선대학교 Neo팀과 Culture Shock팀은 본선에서 각각 '극저온용 신물질의 IMO코드 등재 방법'과 '국가문화를 이용한 해양 안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토론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팀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해양산업협회장(Neo팀)과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이사장(Culture Shock팀)을 수상했다.

안규백 교수는 "조선대에서는 이번 모의 IMO 총회에 처음 참여했는데, 한 대학교에서 두 팀이 본선에 진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이번 대회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큰 자신감을 갖게 된 만큼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김재기 교수팀 '의향정신사업단' 순국선열 후손 3위 훈·포장 전수 이끌어

전남대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이미 훈·포장이 추서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전수되지 못한 3위의 순국선열에 대해 후손을 찾아 서훈 전수를 이끌었다.

전남대 김재기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호남 의병과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의향정신세계화사업단'은 1896년 을미의병 때 순국한 나주 출신 의병장 김창군과 아들 김석현의 후손을 찾아내 이들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전수되도록 했다. 또, 광주3·1운동 참가자 이병환의 후손에게는 건국포장 신청과 전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1896년 을미의병으로 참여했다가 아들과 함께 순국한 김창군 선생은 24년전인 1995년에, 아들 김석현 선생은 16년전인 2003년에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으나 후손이 전수되지 못했다. 전남대 연구팀이 광주전남지역 3·1운동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사는 김달호 후손을 찾아내 전수토록 했다.

이로써 김창군 선생은 아들 김석현과 김복현(김철), 손자 김재호(건국훈장 애국장, 신익희의 딸)에 이르기까지 5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 명문가로 완전히 자리잡게 됐다.

멕시코와 쿠바 한인 서훈 미전수자 40여명을 발굴해 서훈 전수를 도와 온 김재기 교수팀은 내년 1월 전남대 학생들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등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기 교수는 "아직도 전체 서훈 추서자의 1/3인 5000여 명의 서훈이 후손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 분이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컴퓨터공학과,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우수 논문상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학과장 김철원) 교수와 학생들이 '2019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연구능력을 인정받았다.

'미래사회, 그 변화의 시작! 인공지능'을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중앙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호남대학교 4차산업혁명 혁신전도대학사업단(단장 정대원)의 지원과 백관 교수

(컴퓨터공학과)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참가 학생 17명이 발표한 11편의 논문 가운데 '파이썬을 이용한 로켓추진 시스템 개발' (이재복, 백관)과 'NFC 기반 건물 안내 어플리케이션' (전은진, 김서인, 김유진, 김예린, 김정연, 박현수, 양병연 백관) 두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학생들 싱가포르서 글로벌 해외기업탐방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학생들의 전공 실무 능력과 해외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박 6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2019 글로벌 해외기업탐방'을 진행했다.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전기공학전공, 사회복지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14명은 싱가포르의 유명 호텔과 IT분야 기업체를 방문해 해외기업의 현지 업무, 채용 절차 등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이번 기업탐방을 위해 7차례의 사전 교육 모임을 가졌으며 입사지원서 작성법, 영어 자기소개 등을 교육을 받았다. 기업탐방을 마친 뒤에는 방문기업에 대한 소감 등 탐방 후기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미향 광주' 요리대회 17명 수상 동강대학교 호텔조리영양학부가 미향 광주 음식을 세계에 알릴 요리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냈다. 호텔조리영양학부 학생들은 지난 16~1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광주 셰프 챌린지(Chef Challenge)'에서 경연 4개 분야 총 17명이 수상했다. <동강대 제공>

광주대 스마트캠퍼스 에너지 절감 효과 '톡톡'

빈강의실 등 원격 감시·차단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최근 호심관 강의실에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스템' 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정해진 교

수, 한국에너지공단 이두봉 진단실장, 광주대 설혜수 총무처장, 엔엑스테크놀로지 이명익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효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대는 지난해 9월 ㈜엔엑스테크놀로지, 한국휴렛팩커드(슈), ㈜미래정보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호심관 등 10개 건물에 온도조절기, 센서, 스위치 등 7230개의 스마트 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 센서 등이 설치되면 사람이 없는 빈 강의실이나 연구실의 조명과 냉·난방기, 콘센트 등을 원격으로 감시·차단해 전력을

을 개선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방식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수집된 결과를 데이터로 전송, 분석 작업 등을 거쳐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스마트캠퍼스 프로젝트를 실시한 엔엑스테크놀로지는 20~3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